

**누가:**

관동지방회소속의 몇개교회(미토교회/나가노교회/코오리야마교회/동경교회)  
봉사자들 십수명

**어디에서:**

코오리야마(郡山-福島県) 토미타 가설주택

**무엇을:**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피해로 가설주택에 460여명 임시거주자대상, 무료식사배급

**어떻게:**

3월 23일(금) 미토교회에서 450인분 육개장/밥 준비

3월 24일(토)코오리야마 토미타 가설주택단지의 센터시설앞에서 오전 11시 식사배급

**감동사항:**

한국인의, 한국교회가 지원하는 한국식 얼큰한 식사대접에  
한끼 따뜻한 식사가 주는 그 감동은 적지만 따뜻하게 그분들을 위로할것.  
올해 한해동안, 한달에 한번씩, 행사가 예정되어있다하니 크리스찬의 향기가 전해질것.  
분명히..

**참고사항:**

불행하게도, 코오리야마의 방사는 수치는 낮지않은편.  
그러나 거리모습은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방사능을 애써피하는 모습도 보이지않았습.  
하루 봉사하고 돌아오는 동경거주의 우리들에겐 , 치과에가서 렌트겐사진 한장 찍는  
분량이 채 안되어서, 과히 걱정할 바는 아니지만.. 앞으로 평생을 살아야할 이들에겐  
무거운 짐이될것.  
가설주택 임시거주자는 앞으로 2년뒤에는 자기의 생활터전을 만들어서 퇴출될예정.(2년반  
동안, 임시가설주택을 통해 거주지 지원예정)

**기도해주세요!**

마침 날이흐리고, 비가 후두둑 거려서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비가 와도 다들, 방사능 아랑곳없이 비를맞고 다니더군요.  
동경에서 방사능 난리를 피는것과는 실제,현장에서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사이후에, 박정근 목사님의 코오리아마 교회에 들려서, 같이 기도하고 전도활동에 대한 얘기를 나눠듣고 왔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지진/방사능 피해이후, 크리스천의 전도활동에 대해 좀 따뜻한 눈길로 응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사모님 말씀이 사뭇 감동이 되어, 제가 눈물이 쏟아질 감동을 받았더랬습니다.

금전적 불편함을 포함해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으실 터인데,,

“요즘요? 아주 행복해요 !! 일본사람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면 아주 관심을 보여요 ”

“올해들어선 벌써 5명의 일본인이 세례를 받을 예정이에요. 작년은 한명밖에 없었는데”

“작전 60 명까지 일구었던 교인들이 지진피해로 많이 줄었는데,, 다시 힘을 얻었어요..!”



양이라는 글자와 , 우리자신 이라는 글자가 모아지면 무엇이 되는지 아시나요?

Righteousness(義)

(전도지 중의 한페이지)

아주 조그마하지만 밝은 햇살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베드로 선교회에서는 한달 일정액의 선교헌금을 올해 1 년간 지원하기로, 임원진에서 결정하였고, 3 월 19 일 선교회월례회에서 17 명 참가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음을 알립니다.